

# “대법원 판결 검히히 수용”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 만든다

### 최경식 남원시장,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시설 정상화 위한 4대 후속 대책 발표

남원시가 3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시설 정상화를 위한 4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2년여간 이어진 민간개발사업 관련 법적 공방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와 향후 대책 등을 시민들에게 표명하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앞에 시장으로서의 책무와 신념이 무색해지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은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준다면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과부를 준 이 같은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검히히 수용하겠다고 시 재정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한 4대 추진계획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예산 절감분을 활용한 배상 조기 상환으로 이자 부담 최소화 △구상권 청구 등 재정 손실 보전 총력△ 시설물 인수 및 합과우 일대 관광 거점화 △민자 사업 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 등이다.

먼저 남원시는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배상액 506억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으로



남원시가 3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시설 정상화를 위한 4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로, 이를 위해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이자 발생을 차단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설물 소유자인 남원 테마파크(주)를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관련 채권을 철저히 정리하여 시가 입은 재정적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과 시의회 의견 수렴 후, 현재 시행사가 소유한 모노레일 등 관광 시설물의 인수 절차를 검토하고, 이후 정밀 안전점검과 리뉴얼 과정을 거쳐 조속히 정상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2000년 완공 예정인 경철수련원과 연계, 합과우 일대를 남원의 새로

운 관광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향후 모든 대규모 민자 사업에 대해 전문 인력을 통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향후 모든 대규모 민자 사업에 대해 전문 인력을 통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비록 민간 투자사업의 폐해를 법적으로 바로잡지는 못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전반을 더욱 엄격히 되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통합과 신뢰 회복에 전념하겠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협력체계 구축

### NH농협 순창·동계·구림·서순창농협과 업무협약 체결

순창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NH농협 순창·동계·구림·서순창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과 연계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생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실질적인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순창군과 4개 농협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및 지역사회 상생발전 운영에 필요한 발행·유통·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에 상호 협력하고, 기본소득 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지역상생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환원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면 단위 하나로미트와 농자재 판매장 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을 통해 교통·접근성문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더불어, 4개 농협 조합 간 연계사업으로 기본소득데이, 나눔온정장터, 로컬푸드 매장화장 운영 등 조합별 특수시책을 추진해 환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특히 농협 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



기로 조합별 취급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용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역 여건과 소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급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형식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이 생활 속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7개 분야 민생안정 종합대책 가동

임실군이 민중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생활민원 해결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과 안전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총 134명의 근무 인력을 배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분야별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설 명절 종합대책은 △재난·재해대책반 △물가대책상황반 △생활환경개선반 △상·하수도대책반 △교통대책반 △의료방역대책반 △가족 방역대책상황실 등 총 7개 분야를 가동한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생활민원을 즉시 해결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가족들과 정겨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마쳤다.

특히, 군은 명절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의로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해 군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비상 진료를 실시하는 관내 병·의원 및 약국 현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임실군 보건의로원(063-640-31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명절 연휴 동안 생활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비를 강화하고,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현장 대응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대책반을 중심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물품 지원, 명절 음식 나눔 등을 추진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군민들도 소외됨 없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병행한다.

심 민 군수는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행정 공백 없이 철저한 대비 체계를 유지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봄철 산불방지 발대식 개최

순창군이 2026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산림 보호 행보에 나섰다.



군을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영일 순창군수와 공무원 진화대, 산림 재난대응단, 산불중사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봄철 산불방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겠다는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됐다. 이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산불 발생 시 신고 요령, 진화 장비 사용법,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 대응 능력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농림수산물발전기금 70억원 집행

남원시의 농림수산물발전기금 대출 실적은 2025년 들어 최근 수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에 따르면 2025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대출 실적은 총 29건, 약 7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경영안정 자금은 19건, 18억 원, 시설자금은 10건, 52억 원이다.

이는 2024년 7건, 8억 7천만 원 대비 약 8배 증가한 수치로,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이 경영안정과 시설 확충 등 농가 현장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매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1차 신청은 오는 6일까지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출발 책 읽기 도전 100권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과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하여 2월부터 11월까지 ‘출발 책 읽기 도전 100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가 스스로 선정한 그림책 80권과 사서가 추천한 그림책 20권을 모두 읽으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에게 성취감 및 자기 주도적 독서 습관을 기르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민 중 2017년~2022년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존 초등 2학년까지였던 대상을 올해는 3학년까지 한 학년 확대해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참여 어린이에게는 독서 통장을 제공하고, 책을 읽을 때마다 독서 통장에 적어 최종 100권까지 채우도록 한다.

50권 완성 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여 100권 완성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며, 공공도서관 통합하여 선착순 60명에게 독서 통장을 완성하면 인증서와 메달, 기념품을 수여한다.

신청은 방문 접수로 통해 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남원시 공공도서관 누리집이나 어울림(063-620-7788), 시립(063-620-8878), 어린이 청소년도서관(063-620-520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임실군은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2026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 위험이 높은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문제를 개선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생후 66개월까지)를 둔 가구로, 보건의료원에서 소득·재산 조사와 영양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 분유 등 맞춤형 보충식품이 월 2회 가점으로 배송되며, 영양교육과 개인별 영양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전주매일 캠페인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